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만들기

— 창원 마을흔적보전사업의 환경조형물을 중심으로 —

The Create Cultureal art space in the urban regeneration

민 성 기* · 김 수 경** · 한 창 준***

Min, Seong-Ki · Kim, Su-Gyeong · Han, Chang-Jun

요 약

현대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여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쇠퇴한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에서 환경조형물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그것이 놓이는 장소 혹은 공간이 가지는 의미,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라는 영역에서 예술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마을흔적보전사업의 환경조형물을 '리사이클, 업사이클, 뉴사이클'이라는 3개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를 통해 환경조형물이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마을흔적보전이라는 사회적·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담아냄으로서 도시재생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keywords : 도시재생사업, 마을흔적, 리사이클, 업사이클, 뉴사이클, 환경조형물

1. 서 론

현대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여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쇠퇴한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에서 환경조형물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그것이 놓이는 장소 혹은 공간이 가지는 의미,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라는 영역에서 예술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마을흔적보전사업은 개발이전 마을의 풍경과 주민들의 일상 흔적을 발굴, 복원, 보전하여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품위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마을흔적보전사업의 환경조형물을 연구함으로써 도시재생에서 환경조형물의 가치와 역할을 확장할 수 있다.

2. 본 론

기존 환경조형물의 유형은 아파트 미술장식품, 지자체 홍보조형물, 도시 상징조형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을흔적보전사업의 환경조형물은 특화된 마을흔적물의 가치와 역할을 확장함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연구해 볼 수 있다.

2.1. 리사이클(Re-cycling) 유형

마을 흔적물의 형태와 소재를 그대로 활용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재현한다. 아파트 입구의 상징간판이 있던 흑벽돌과 화강석 현판의 실물을 본래의 모습으로 재현한다.

* 정회원 · 디자인휴머 대표, 창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석사 수료 startemple@hanmail.net

** 문화디자인연구원 빛고을 책임연구원 lenny83@nate.com

*** 창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cjhan32000@hotmail.com

